

##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내성지 출토 ‘옷관형 암각화’의 상징성

장 장 식 (국립민속박물관)

### 차례

- I. 옷관에 대한 의문
- II. 주춧돌 옷관형 암각화에 대한 해석 검토
- III. 전통적인 건축의례의 상징성
- IV. 새로운 해석의 시도
- V. 잠정적인 결론

### I. 옷관에 대한 의문

그동안 암각화 유적지나 유물에서 발견된 ‘옷관’을 지칭하는 용어는 여러 가지로 쓰였다. 대표적인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표1> 옷관 용어

명칭	연구자	명칭	연구자
옷관 암각화	김일권(2000), 송화섭(2004) <sup>1)</sup>	옷관형 암각화	권미현(1996) <sup>2)</sup>
옷놀이판 바위그림	김일권(2004) <sup>3)</sup>	옷관형 바위그림	송화섭(19956), 이하우(2004) <sup>4)</sup>
		옷관형 암각	정동락(2008) <sup>5)</sup>

이 용어들은 모두 ‘옷놀이 도판인 옷관을 그린 바위그림’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그러나 이들 용어는 ‘\*\*형’의 유무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뉘며 형태론적인 차이는 미미할지라도 의미론적인 차별성은 매우 크다. 한 갈래는 ‘옷관 암각화, 옷놀이판 바위그림’ 계열의 용어인데, 이들은 ‘놀이로서의 기능성을 지닌 도판’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다. 또 한 갈래는 ‘옷관형 암각화, 옷관형 암각’이라는 계열로, ‘놀이로서의 기능성을 지닌 도판과 같은 형태’라는 뜻을 강조한 이름이다. ‘같은’이라는 관용어는 본질은 다르되 형태가 유사함을 들어 쓴 말이니, 옷관형 암각화는 놀이를 가리키는 옷관과 거리가 있다는 속뜻을 담고 있다.<sup>6)</sup>

1) 김일권, 2000, 「한국 옷관형 암각화의 문화성과 상징성」, 『학예연구』 제3·4집, 국민대학교박물관, 63~110쪽.; 송화섭, 2004, 「한국 옷관암각화와 불교신앙」, 『한국 암각화연구』 제5집, 한국암각화학회, 1~20쪽.  
 2) 권미현, 1996, 「옷관형 암각화의 연구」, 『안동사학』 제2집, 안동대학교사학회, 47쪽.  
 3) 김일권, 2004, 「한국 옷놀이판 바위그림에 투영된 천체우주론적 관점 고찰: 정읍 두승산 망화대의 바위그림 자료 소개를 덧붙여」, 『한국 암각화연구』 제5집, 한국암각화학회, 57~103쪽.  
 4) 송화섭, 1995, 「익산 미륵산·미륵사지의 옷관형 바위그림에 대하여」, 『향토문화』 제9·10집, 향토문화연구회, 45~65쪽.; 이하우, 2004, 「한국 옷관형 바위그림 연구-방위각을 중심으로」, 『한국 암각화연구』 제5집, 한국암각화학회, 23~54쪽.  
 5) 정동락, 2008, 「고령지역의 옷관형 암각」, 『한국 암각화연구』 제11·12집, 한국암각화학회, 161~176쪽.  
 6) 원관념(A)을 유사성이 있는 보조관념(B)을 활용하여 표현 대상을 나타내는 직유법simile이다. 문법구조는 “A는 B와 같

후자는 현행의 민속놀이 ‘윷’과 ‘윷놀이’의 놀이성을 인정하기는 하나 또 다른 기능성을 염두에 둔 명칭이다. 무엇을 상징하는가(도형의 상징성)를 알 수 없지만 현행의 윷놀이를 하는 데 쓰이는 놀이판(윷판, 말판)과 같은 형태를 띤 바위그림이라는 뜻이다. 이는 윷판형 암각화가 본디부터 지닌 특정한 의미(놀이 이외의 특정한 의미)를 지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놀이로서의 윷판 그림을 염두에 두되 그 이전의 기능을 강조하는 의미로 ‘윷판형 암각화’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다.<sup>7)</sup>

윷판형 암각화가 소재하는 ‘장소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장소마다 다른 상징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장소성을 일률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 우선 윷판형 암각화가 소재하는 곳은 ‘바위’가 대종을 이루고 자연바위와 인공암반 및 인공물로 나뉜다. 자연바위는 산정이나 산록 및 마을 들머리의 자연암반을 가리키며, 인공물은 건축부재로 가공된 바위나 전돌 등을 가리킨다. 후자의 경우, 주춧돌이나 전돌과 같은 건축부재에 등장하는 윷판이다.

이하우(2014)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까지 발견되어 총합된 윷판형 암각화는 총 60곳 252점이다.<sup>8)</sup> 이 통계는 가장 최근에 집계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정식으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고 있다.

윷판형 암각화는 의미로 볼 때 놀이의 기능만을 특정할 수 없다. 암각화의 장소성과 존재양상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sup>9)</sup>

- ① 한 장소 또는 한 바위의 畫面에 多數의 윷판이 등장한다.
- ② 수평암반 뿐만 아니라 바위의 경사면에도 윷판이 존재한다.<sup>10)</sup>
- ③ 이전의 윷판 위에 새 윷판이 덧새겨진다.<sup>11)</sup>
- ④ 未完의 윷판이 다수 존재한다.<sup>12)</sup>

이와 같은 양상은 윷판형 암각화가 단순히 놀이용이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종교적 관념을 바탕으로 한 특정 의례에 의한 결과물, 즉 의례적 상관물Ritual correlative이라는 것인데, 이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므로 윷판형 암각화는 놀이로서의 도판이라는 점과

다.” 또는 “B같은 A”인데, A=B라는 뜻을 담고 있으나 A=B라는 뜻은 아니다.

7) 이 부분은 장장식, 2014, 「윷판형·고누판형 암각화의 성격과 의미」, 『한국암각화연구』 제18집, 한국암각화학회, 184~185쪽의 일부를 가져온 것이다.

8) 이하우, 2014, 「임실 윷판유적의 위상과 활용방안」, 『한국암각화연구』 제18집, 한국암각화학회, 165~169쪽. 이 연구에 의하면 지역적인 분포는 경서권 36곳 168점, 전라권 11곳 59점, 충청권 4곳 6점, 서울·경기권 5곳 6점, 기타(제주, 개성, 만주) 3곳 3점이며, 이를 총합하면 총60곳 252점이다.

9) 장장식, 2014, 「윷판형·고누판형 암각화의 성격과 의미」, 『한국암각화연구』 제18집, 한국암각화학회, 189~190쪽.

10) 경상북도 고령지역에 산재한 윷판형 암각화(7곳 61점)를 조사·분석한 정동락(2008)은 경사면에 새겨진 윷판의 사례로 운수면 월산리 자료를 언급하고 있다. 정동락, 2008, 「고령지역의 윷판형 암각」, 『한국 암각화연구』 제11·12집, 한국암각화학회, 168쪽.

11) 이전의 윷판을 훼손하면서 새로운 윷판을 새긴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다수 있다.

12) 미완성꼴의 윷판을 ‘지속적인 풍화작용과 그로 인한 표면박리, 박락에 의해 일부가 사라지고 남은 잔존형태’로 볼 수 있다(이하우, 2014, 「상가 윷판유적의 조사와 문화사적 위상, 그리고 활용」, 『임실 상가윷판 유적』, 한국암각화학회·임실문화원·울산대 반구대암각화유적보존연구소, 21~22쪽.). 그러나 미처 완성하지 못한 채 방기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의례의 중단’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윷판형 암각화는 巖刻의 결과뿐만 아니라 바위에 윷판을 새기는 수행과정까지 주목해야 한다.

의례로서의 상징도판이라는 이중적인 결론에 도달한 상황이다.

특히 이 글의 관심이기도 한 건축물의 주춧돌에 새겨진 옷판의 존재는 어떤 의미로 읽어야 할까? 이 질문은 “왜 주춧돌에 옷판을 새겼을까?” 하는 질문으로 환원될 수 있다. 주춧돌에 새긴 옷판형 암각화가 놀이용이라면 이런 질문은 무용해지고 명칭을 ‘옷판 암각화’로 바꿔야 한다. 그런데도 이런 질문을 애써 하는 것은 주춧돌 옷판이 놀이용이 아니라 특정의 의례성을 구현하고 있다는 개연성 때문이다.

제주도 향파두리 향몽유적 내성지의 3호 건물지 좌측 두 번째 열의 주춧돌에서 옷판형 암각화가 발견되었다.<sup>13)</sup> 주춧돌은 비정형의 자연암석을 활용한 덩벙주춧돌인데, 79×50cm의 남북장축의 바위 중심부에 주좌를 남기고 그 이외의 공간은 바위표면을 적당한 범위 안에서 일정부분 까낸 형태이다. 주좌의 한가운데에 옷판을 새겼으며, 옷판은 20.5×16.8cm의 크기에, 전반적으로 거칠게 쪼아서 급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옷판에서 북쪽으로는 옷판을 구성하는 29개의 홈과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작은 홈이 한 개 더 새겨져 있다.<sup>14)</sup>

이와 같은 사례는 제주도로서는 처음 있는 발견이고, 육지부에서도 그리 많지 않은 사례(총5곳 7점)임을 감안할 때 예사일이 아니다. 놀이용<sup>15)</sup>이 아닌 특정 의례용이라면 옷판형 암각화라는 명칭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 의미를 적극 따져야 할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이 여기에 있으니, 논제를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內城址 출토 ‘옷판형 암각화’의 상징성」으로 삼은 까닭이다.

## II. 주춧돌 옷판형 암각화에 대한 해석 검토

지금까지 주춧돌에 새긴 옷판형 암각화를 발견한 곳은 ‘익산 미륵사지(2점), 경주 반월성지(1점), 안동 조탑리 寺址(1점), 종루址(2점), 경주 황룡사지(1점) 등이다. 총5곳에서 발견되었고, 수효는 모두 7점이었다.<sup>16)</sup> 여기에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내성지 3호 건물지의 주춧돌 옷판 암각화 1점을 추가하면 총6곳 8점이 된다.

### <표2> 주춧돌 옷판형 암각화 현황

13) 제주고고학연구소, 2013,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내성지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41쪽. 이 옷판형 암각화는 3호 건물지 주춧돌 위에서 발견되었고, ‘도판 3’의 번호로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14) 2015년 6월 현재 이하우(울산대학교 반구대암각화유적보존연구소)는 2013년 발표요지문 「주초석에 새긴 옷판형 암각화의 성격」을 보완하여 「주초석 옷판형 암각화의 성격」을 집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집필중인 원고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15) 참고로 제주도의 현행 옷판은 육지부와 향파두리 발견 옷판과는 다르다. 제주의 옷판은 십자(+)의 4가지에 V자 2개씩을 각 방향으로 결합한 형태이다. 언제부터 이런 형태의 옷판을 사용했는가 하는 문제는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16) 주춧돌 외에 건물지 전돌에서 발견된 3사례(강화군 강화산성 남장대지 출토 전돌, 인용사지 출토 전돌, 개성 만월대지 출토 바다전돌)가 있으나 주춧돌이 아니라는 점에서 논의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미륵사지 서탑 해체 과정에서 석부재(석축 L157)에서 발견(2008.8. 장장식, 송화섭 등에 의해 확인)된 옷판형 암각화 1점 역시 주춧돌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외한다. cf. 전돌 옷판이 수록된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다. ①서영대 등 3인, 2011, 『인천의 전통놀이』, 인천문화재단, 14쪽.; ②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9, 『傳 인용사지 발굴조사 중간보고서』, 63쪽.; ③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서 I』, 522쪽.

연번	유적명	소재물과 수량	위치	성격
1	미륵사지	북회랑지·강당지 주춧돌 2점	북(좌)	백제왕실 관련
2	반월성지	용도미상 건물지 주춧돌 1점	북쪽	신라 왕궁지
3	황룡사지	승방지 주춧돌 1점	북(좌)쪽	신라왕실 관련
4	조탑리寺址	용도미상 건물지 주춧돌 1점	불명	통일신라, 고려와 조선
5	종루址	종루 주춧돌 2점	북(좌)·모서리	조선왕도의 종루
6	향파두리 內城址	3호 건물지 주춧돌 1점	****	삼별초 항쟁 거점
총계	6곳	8점		

주춧돌 소재 윗판형 암각화의 의미에 대한 견해를 제출한 연구자는 송화섭(1995, 2014), 장장식(2008), 이하우(2013) 등이다. 이들의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송화섭(1995)은 익산 미륵산과 미륵사지의 윗판형 암각화가 익산지역의 토착 농경신앙과 미륵 하생신앙이 결합되고, 백제왕권의 안정을 간구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sup>17)</sup> 이와 같은 논의는 윗판형 암각화를 새롭게 보는 인식을 제공하여 연구사적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후 송화섭(2014)은 윗판형 암각화를 ‘墳墓 윗판, 건물지(주초석) 윗판, 山頂 윗판’으로 나누고, 건물지 윗판은 고구려 고분벽화가 피장자의 안식처인 저승세계를 星曼多羅로 조성하려는 밀교의 우주관을 반영한 것처럼 만다라의 공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의 주초석에 윗판을 새겨 불교적 이상향 세계, 즉 만다라의 상징적 공간임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였다.<sup>18)</sup>

이와는 달리 장장식(2008)은 종루의 주춧돌 윗판 2점을 새로 발견하고, 주춧돌의 윗판은 立柱 儀禮로서 샅된 것을 쫓는 하나의 상징이며, 28宿나 북두칠성을 주춧돌에 내려 앉힘으로써 기하학적 완전공간을 구현하려는 상징행위로 보았다.<sup>19)</sup> 이와 같은 견해는 암각화의 하나로서 자주 발견되는 참고누판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까지 확장되어 ‘고누판형 암각화가 三台六星(삼태성)의 운행을 모사한 것’이라는 가설을 내리는 논거로 삼기도 했다.<sup>20)</sup>

또 이하우(2013)는 주초석에 새긴 윗판형 암각화를 ‘천문의 조화를 건축물에 치환transposition하고, 우주적 천문질서가 축약된 소우주가 건축물에 조응되기를 바라는 염원의 상징’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sup>21)</sup> 이 견해는 ‘주초석 윗판형 암각화는 왕조사회의 이상과 의지에 대한 표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주춧돌 윗판형 암각화에 대한 논의는 고고학·민속학계 등의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한 편이다. 논증해야 할 부분이 있고,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여 상호 비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향파두리 內城址에서 발견한 주춧돌 윗판형 암각화는 매우 소중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함께 주춧돌을 수습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전문가적 식견에서 치밀하고 사명감 있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17) 송화섭, 1995, 「익산 미륵산·미륵사지의 윗판형 바위그림에 대하여」, 『향토문화』 제9·10집, 향토문화연구원, 45~65쪽.  
 18) 송화섭, 2014, 「한국 윗판형 암각화의 역사와 성격」, 『한국암각화연구』 제18집, 한국암각화학회, 140~141쪽.  
 19) 장장식, 2008.9, 「종루의 주춧돌에 새긴 윗판」, 『민속소식』 제157호, 국립민속박물관, 4~5쪽.; 이 글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윗문화 자료집, 연구논문편』, (사)한국민족종교협의회, 2013, 675~680쪽에 재수록하였다.  
 20) 장장식, 2014, 「윗판형·고누판형 암각화의 성격과 의미」, 『한국암각화연구』 제18집, 한국암각화학회, 181~203쪽.  
 21) 이하우, 2013, 「주초석에 새긴 윗판형 암각화의 성격」, 『2013전통문화계승 학술대회 발표집』, (사)한국민족종교협의회, 37~54쪽.

### Ⅲ. 전통적인 건축의례의 상징성

건물지 주춧돌에 옷판을 새긴 이유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통사회에서 행해졌던 건축의례를 살필 필요가 있다. 현행의 건축의례 중에서 전통적인 의례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건축의 의례와 상징성을 살펴야 하고, 문헌에 수록된 국가적 건축의례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료가 그리 많지 않거나 소략한 편이기 때문에 주춧돌의 옷판형 암각화를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건축의례는 건축물을 짓고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례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날반이·덧고사, 開工고사·모탕고사, 성주운보기, 上樑고사, 집들이·성주고사 등<sup>22)</sup>을 들 수 있다. 좀더 세부적으로 접근하면 ‘開工고사·모탕고사’와 ‘성주운보기’ 사이에 ‘定礎의례, 立柱의례’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각각의 독자성에 기반하여 수행되지만 건축물을 짓기 시작하여 완공하기까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계기적으로 이어지는 분절적인 단위들이다.

모탕고사는 땅을 選定한 다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춧돌을 놓을 자리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지내는 의례이다. 이른바 주춧돌을 놓기 전에 지내는 의례인데, 이 때, 집터에 특정 물건을 埋納하기도 한다.<sup>23)</sup>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주춧돌을 놓아야 하는데, 이를 定礎 또는 列礎라 한다. 이때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관인데, 지관은 列礎日과 列礎時는 물론 坐向을 정하며, 이에 따라 특정된 열초일과 열초시에 주춧돌을 놓는다. 지관은 佩鐵을 놓아 건물의 중심이 되는 주춧돌의 위치를 정하고, 그 위에 먹선으로 +자를 표시(‘십반’)하는데, 이를 ‘십반 놓는다.’고 한다.

십반을 놓은 특정 주춧돌은 기둥을 세우는 기준점이 된다. 십반을 놓은 주춧돌은 여러 주춧돌 가운데 특정된 으뜸 주춧돌이고, 첫 기둥을 세우는 대상인 동시에 건축물의 방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집을 짓는 과정에서 건물의 방향을 결정할 때 ‘정확한 일점을 정하기 위하여 望筒으로 북극성의 위치를 측정하여 원하는 자리를 잡는다.’<sup>24)</sup> 이 말은 짓고자 하는 집이 바르게 子坐午向하기 위해서는 북극성의 정확한 위치를 보고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sup>25)</sup>

민간건축에서 행해지는 이와 같은 십반은 백제의 왕궁건축물에서도 발견될 만큼 유래가 깊다. 미륵사지 석탑을 해체할 때, 심주석 상면에 놓은 먹선의 십반이 선명하게 드러났다.<sup>26)</sup>

입주의례는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는 의례를 가리킨다. 지관이 특정한 날에 入柱를 하는데, 전통적으로 ‘기둥을 세운다’는 뜻으로 豎柱라는 용어를 썼다. 길한 入柱日을 『산림경제』<sup>27)</sup>에서는

22) 김광연, 1998, 『한국의 주거민속』, 민음사, 39~53쪽.

23) 초석 밑에 돌로 쌓은 기초부분을 積心이라 하는데, 보통 이 부근에 특정물건을 매납한다. 鎮壇具 또는 地鎮具와 비슷한 상징의례이다. 서울의 서린동 발굴조사에서 적심 부분에 매납된 도자기류가 수습된 바 있는데, 이 유물은 15~16C 것으로 추정된다. 한강문화재연구원, 2010, 『서린동 글로벌 클러스터빌딩 신축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3차 지도위원회의 자료』, 26쪽 참고.

24) 신영훈, 1983, 『한국의 살림집』 상, 열화당, 256쪽.

25) 이하우, 2013, 「주초석에 새긴 옷판형 암각화의 성격」, 『2013전통문화계승 학술대회 발표집』, 51쪽.

26)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13쪽.

‘豎柱吉日’이라 했다. ‘豎柱’가 立柱의 뜻으로 쓰인 용례는 『국역 승정원일기』<sup>28)</sup>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용례를 근거로 입주의례를 ‘豎柱의례’라 불러도 무방하다.

첫 기둥은 +자를 표시한 주춧돌부터 세워진다.<sup>29)</sup> 구체적으로 기둥을 세울 때에 柱座에 소금, 간수, 양젓물, 백반을 뿌리거나 숯, 엽전 등을 선택적으로 넣는다. 때로는 기둥의 밑을 파서 백지와 함께 넣기도 한다. 이들은 화재막이, 벽사, 祈福 등의 의미로 수행되는 의례이다.<sup>30)</sup> 이와는 달리 글씨를 써서 이를 갈음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 같다.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윤선도 가옥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윤선도의 집은 명례방 鍾峴에 있다 지금도 주춧돌에 먹으로 쓴 如山不動이라는 글자가 있어 바람과 비에 씻기지 않는다. 혹은 허목의 글씨라고도 하며, 집터는 燕巢形이라고 한다.<sup>31)</sup>

이처럼 민간에서 행해진 건축의례는 터 닦기에서부터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며, 상량식과 入宅의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특정 의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의례 가운데 입주의례에서 주목할 것은 ‘특정 주춧돌을 기준으로 잡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운다.’는 점과 ‘특정 기둥 밑 柱座에 특정물을 놓거나 글씨를 썼다.’는 점이다.

국가 관련 건축의례는 민간의 건축의례처럼 진행되었을까? 아니면 달리 진행되었을까? 궁궐 건축물 의례에 대한 기록이 적지 않으나 이런 질문에 답변할 구체적인 양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기록의 행간 읽기를 통해 定礎의례와 立柱(豎柱)의례가 행해졌음을 짐작할 따름이다.

국가가 주동하여 건축한 殿閣, 祠宇, 齋室, 비각, 관청, 대문 등 국가건축물의 진행과정에 대한 기록은 『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왕조실록의 경우, 영조, 성종, 명종, 고종대의 사례가 있고, 『일성록』의 정조대, 『승정원일기』의 고종대에 행해진 건축물의 定礎와 立柱의례 관련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모두 16건인데, 이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를 든다.

- ① 『영조실록』 즉위년 9월 27일; 재실에 터를 닦고 주춧돌을 놓으며 기둥을 세우고 기둥에 보를 얹는 일에 대한 吉日과 吉時를 일관이 잡게 하였다. 서쪽 기둥을 먼저 세우라.
- ② 『국역 일성록』 정조 2년(1778) 1월 15일; 터를 닦는 것은 2월 17일 巳時에, 주춧돌을 놓는 것은 18일 午時에,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올리는 것은 같은 달, 같은 날, 申時에 하다.
- ③ 『국역 일성록』 정조 17년(1793) 2월 21일; 주춧돌을 세우는 일은 4월 8일 묘시에 먼저 북쪽 주춧돌부터 놓고, 기둥을 세우는 일과 기둥에 대들보를 올리는 일은 4월 11일 巳時에

27) 『산림경제』 제4권, 「선택」조에서는 ‘豎柱吉日’ 항목을 들어 기둥 세우기에 좋은 날을 제시하고 있다. 민족문화추진회, 1983, 『국역 산림경제』, 217쪽.

28) 『국역승정원일기』 고종 34년(1897) 5월 27일.

29) ‘開工大吉’이라 쓴 紅紙를 기둥으로 쓰일 목재의 상부에 붙이고, ‘姜太公在此’라 쓴 黃紙를 목수일 하는 곳에 붙인다. 이 종이는 일을 마칠 때까지 훼손해서는 안 된다. cf. 장보웅, 1981, 『한국의 민가 연구』, 보진재, 39쪽.

30) 김도경, 2004, 『한옥살림집을 짓다』, 현암사.; 신영훈, 1986,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249~284쪽.

31) 『신증동국여지승람』 3권, 「동국여지비고」 제2편 ‘한성부’조; 이와 동일한 기록으로 『임하필기』 29권 「春明逸史」 ‘不動樓’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글을 쓴 곳이 주춧돌이 아니라 돌기둥이라 했으니 두 기록 사이의 차이가 매우 큰 셈이다. 『임하필기』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鍾峴의 깎아지른 곳에古舍 하나가 있다. 터가 좋은 곳으로 일컬어지니, 장안이 굽어 보이고 시야가 탁 트인 곳이다. 眉叟가 섬약한 글씨로 ‘如山不動’ 네 글자를 古篆으로 石柱에 썼고, 우암이 ‘不動樓’ 세 글자를 半楷書로 써서 누각 처마에 걸었다.”

먼저 북쪽 기둥을 세우라.

- ④ 『국역 승정원일기』 고종 18년(1881) 11월 2일; 함녕전 대문의 주춧돌을 11월 4일 未時에, 기둥을 세우는 것은 9일 午時에 하고, 상량하는 날은 20일 辰時가 길하다.
- ⑤ 『국역 승정원일기』 고종 34년(1897) 2월 30일; 산릉 침전의 주춧돌을 3월 2일 未時에, 입주하는 날은 11일 卯時에, 상량은 14일 申時에 하라. …(중략)… 남쪽의 주춧돌을 먼저 놓고, 남쪽 기둥을 먼저 세우는 것이 길하다.
- ⑥ 『국역 승정원일기』 고종 34년(1897) 5월 27일; 휘릉 정자각의 주춧돌을 5월 27일 卯時에, 堅柱는 6월 10일 辰時에 하라. …(중략)… 북쪽의 주춧돌을 먼저 놓고, 북쪽 기둥을 먼저 세우는 것이 길하다.
- ⑦ 『국역 승정원일기』 고종 38년(1901) 1월 9일; 주춧돌을 놓는 일은 3월 3일 미시에 남쪽 주춧돌을 먼저 놓고, 기둥을 세우는 일은 동월 9일 未時에 남쪽 기둥을 먼저 세우라.

이들 기록에서 주목하는 것은 ‘주춧돌을 언제 놓는가, 어느 주춧돌을 먼저 놓는가’와 ‘기둥을 언제 세우는가, 어느 기둥을 먼저 세우는가’이다. 방위에 따른 주춧돌의 선별과 시각에 입각한 定礎 관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고, 立柱의 경우 입주 시각을 선별하되 定礎된 결과에 따라 특정 방향의 기둥이 특정되고 있다. 이 점은 定礎와 立柱가 특정의 인식틀에 의해 행해졌다는 뜻이고, 기록 이외의 ‘의례화된’ 특정 행위를 수행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는 다소 다른 양상이나 건축의례의 하나로써 人身을 供犧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은 참고할 만하다. 대표적인 두 사례를 보기로 든다.

- ① 『고려사』 「열전」 권42 최충헌조; 최충헌이 집을 지을 때 동남동녀를 잡아 오색옷을 입혀 네 귀퉁이에 묻어 토목의 기운을 가신다 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다.
- ② 『고려사절요』 제25권 충혜왕 4년 4월; 경성 안에 뜯소문이 돌기를 “왕이 민간의 어린아이 5,60명을 잡아다 궁궐 주춧돌 아래에 묻으려 한다.” 하여 도망하여 숨는 자가 많았고, 불량배들이 이 틈을 타서 도둑질을 하다.

사례 ①, ②에서 보이는 人身供犧가 실제로 행해졌는지는 미지수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건축의례의 하나로써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후대의 일이지만 경복궁을 중창할 때나 압록강 수풍담을 쌓을 때에도 ‘아이를 묻는다’는 소문이 난 것을 보면, 그것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건축의례와 관련된 특정의례가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건물지 주춧돌 위에서 윗판형 암각화가 발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앞으로 그 수효는 늘어갈 가능성이 높다. 또 주춧돌의 윗판형 암각화가 놀이와는 관련이 적은 것이고, 건축의례의 사고와 행위의 결과일 수 있다는 해석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시도를 통해 향과두리 內城址에서 발견된 주춧돌 윗판 암각화의 의미를 밝힐 차례가 되었다.

#### IV. 새로운 해석의 시도



국가 관련 건축에서 다른 의례는 기록되지 않아 주춧돌 정하고 기둥을 세우는 구체적인 내용을 特定할 수 없었다. 다만 부족한 자료의 행간에서 세 가지 개연성을 분명하게 확인한 것은 큰 소득이다.

- ① 건축물을 세울 때 특정의례를 행한다.
- ② 주춧돌에 특정 상징물을 표현한다.
- ③ 표현물은 ‘옷판’과 같은 상징물일 수 있다.

이런 추론은 지금까지 발견된 총6곳의 8점(건축물 주춧돌)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는 논거로 삼을 만하다. 건축 과정에서 단순히 여가를 즐기기 위해 주춧돌 위에 놀이용 옷판을 새겼다는 해석은 여러 모로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물리적 시간의 여유가 없으며, 주춧돌이 놓인 공간은 놀이판의 局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공간이다. 놀이용이라 해도 땅바닥에 그리면 될 옷판을 굳이 바위면에 새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해석을 하려는 것인데, ①~③의 개연성에 힘입어 옷판의 상징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적극 적용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천문학은 성리학적 우주론cosmology에 지적 관심을 집중하였다. 이에 따라 옷판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십팔수가 천구상에 포진한 것으로 비유하고, 태양의 二分二至(춘분과 추분, 하지와 동지) 운행을 모식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대세를 이루었다. 이러한 해석은 金文豹(1568~1608)의 『梔圖說』에서 비롯되는데, 김육이 편찬한 『松都志』(1648)에 수록된 이래 이익(1681~1763)<sup>32)</sup>, 沈翼雲(1734~?)<sup>33)</sup>, 鄭東愈(1744~1808)<sup>34)</sup>, 이규경(1788~?)<sup>35)</sup> 등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이른바 조선조 지식인의 인식과 세계관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해석과 수용인 셈이다.

현대의 연구자 역시 중국의 천문학적 지식에 따라 김문표의 『사도설』을 지지하거나<sup>36)</sup> 원(○)

32) 李瀾은 『성호사설』에서 “추성과 28수의 관계를 논했고, 옷길을 이분이지의 태양 궤도를 상징한다.”고 설명하였다. 『성호사설』 제4권 『萬物門』 ‘사도’조.

33) 沈翼雲의 옷에 대한 인식은 『江天閣銷夏錄』에 수록되어 있는 『梔戲經』에 잘 드러나 있다. 김만태(2009)는 없어진 것으로 알려진 『梔戲經』을 발굴하여 소개한 바 있다. 김만태, 2009, 『옷놀이에 관한 쟁점 고찰-〈梔戲經〉의 존재 여부와 옷놀이의 유래를 중심으로』, 『민속학연구』 제24호, 국립민속박물관, 127~130쪽 참고.

34) 鄭東愈는 『晝永編』을 기술하면서 김문표의 『사도설』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바깥이 등 굽은 象天한 것이며, 안이 모난 것은 象地한 것이니, 곧 하늘이 땅의 바깥을 감싸는 天包地外의 형국이다. 중심에 자리한 별은 추성이며, 옆에 벌려 있는 것은 이십팔수이다.” 『晝永編』 4권 『貞篇』.

35) 이규경은 『오주연문장전산고』 『梔戲辨證說』에서 “가운데 한 점은 樞星을 상징하니 곧 北辰의 居所란 뜻이며, 주변에 배열된 것은 네 七宿를 상징한 것이니 곧 사방 각기 칠성이 있어 사시를 운행하는 의미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내부의 +자형 구성(⊕)에 주목하여 태양에 대한 신앙을 표현한 태양상징이라는 독특한 설도 제기되었다.<sup>37)</sup> 태양상징설을 논외로 하되 율관이 이십팔수를 반영한 도안이라는 「사도설」은 자체의 정연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율관 또는 율놀이가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문화이고, 중국문화 속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말았다. 결국 중국에 없는 우리만의 율관을 들어 ‘당대의 보편적인 지식인 중국의 천문학적 논리를 반영하여 새롭게 해석한’<sup>38)</sup> 셈인데, 이와 같은 二十八宿說은 율관의 외재적인 성격을 이해할 수 있지만 율관에 대한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해석이 될 수 없다. 이를테면 서양의 문화이론을 들어 우리문화를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인식을 비판하여 대안적인 해석을 내린 최근의 연구성과가 제출되어 주목된다. ‘율관은 북두칠성의 일주를 모사한 것’이라는 연구자들의 주장<sup>39)</sup>은 주춧돌의 율관형 암각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김일권(2002)<sup>40)</sup>과 이하우(2004)<sup>41)</sup>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북두칠성의 周天를 模式하여 율관으로 완성되어 가는 도판을 제시함으로써 율관과 북두칠성의 관계성을 논리적으로 탐구하였다.<sup>42)</sup> 특히 이하우(2013)는 율관이 일종의 천문도이고, 북쪽 하늘의 북극성을 중심으로 정확한 시간 간격과 일정한 공간적 위치를 갖고 연주 운동하는 북두칠성을 도형화한 상징문양임을 재차 거론하였다.<sup>43)</sup>

조선조의 해석과 현재의 해석에서 차이가 크지만 중요한 것은 율관이 천상의 질서를 구현한 우주론적 모형이라는 점에서 주춧돌의 율관은 천문적 질서에 조응하는 건축물의 상징 문양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필자는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 의례를 염두에 두면서 북두칠성의 일주를 모사한 것이 ‘율관형 암각화’라는 그간의 견해를 접목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율관형 암각화에서 도형 ‘율관’은 ‘상하좌우 대각의 완전대칭꼴 도형’이라는 점과 매우 단순한 구조의 도판이라는 도형성으로 특징된다. 형태적으로 볼 때, 외변을 이루는 원형(○)과 원형 내의 +자 꼴로 이루어진 도판(⊕)이다. 가운데점을 북극성으로 볼 때, 원형(○)과 원형 내의 +자 상에 놓인 점은 모두 28개이다. 28은 4×7인데, 4는 사계절을, 7은 북두칠성을 각각 뜻한다. 이들이 북

36) 송화섭, 1995, 「익산 미륵산·미륵사지의 율관형 바위그림에 대하여」, 『향토문화』 제9·10집, 향토문화연구회; 송화섭, 2004, 「한국 율관암각화와 불교신앙」, 『한국 암각화연구』 제5집, 한국암각화학회, 7~9쪽.

37) 권미현, 1996, 「율관형 암각화의 연구」, 『안동사학』 제2집, 67쪽.

38) 이하우, 2013, 「주초석에 새긴 율관형 암각화의 성격」, 『2013전통문화계승 학술대회 발표집』, (사)한국민족종교협의회, 50쪽.

39) 이하우, 1994, 『칠포마을 바위그림』, 고문연; 김일권, 1998, 「별자리형 바위구멍에 대한 고찰」, 『고문화』 51집; 김일권, 2004, 「한국 율놀이판 바위그림에 투영된 천체우주론적 관점 고찰: 정읍 두승산 망화대의 바위그림 자료 소개를 덧붙여」, 『한국 암각화연구』 제5집, 한국암각화학회, 57~105쪽.

40) 김일권은 「한국 고대인의 천문우주관」(『강좌 한국고대사』 제8권, (재)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2, 43쪽)을 시작으로 최근의 연구성과인 「한국 율의 문화사와 율관암각화의 천문사상: 입실의 율관암각화 발굴과 천문의 도시 단상을 붙여」(『한국암각화연구』 제18집, 한국암각화학회, 2014.12, 81~120쪽)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북두칠성 주천운동에서 율관도로의 모델링 과정을 밝혔다.

41) 이하우, 2004, 「한국 율관형 바위그림 연구-방위각을 중심으로」, 『한국 암각화연구』 제5집, 한국암각화학회, 25~26쪽.

42) 김일권과 이하우의 모식모형은 상호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 필자는 토론문을 통해 ‘북두칠성의 일곱째인 破軍星이 도, 뒷도, 찌도, 날도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배열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나름의 모식도형을 제시한 바 있다. cf. 장장식, 2013, 「주초석에 새긴 율관형 암각화의 성격(이하우)에 대한 토론문」, 『울문화 자료집: 연구논문편』, (사)한국민족종교협의회, 671~673쪽.

43) 이하우, 2013, 「주초석에 새긴 율관형 암각화의 성격」, 『2013전통문화계승 학술대회 발표집』, (사)한국민족종교협의회, 2013.6.17, 48~50쪽.

극성을 구심점으로 삼아 天球처럼 원형의 형태를 취한 것이고, 이는 북두칠성이 사계절을 周天하는 각각의 통시성을 공시적 관점에서 집합한 것이다.

옷판을 주춧돌에 새길 때, 기둥을 세우는 자리에 새긴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른바 柱座에 세운다는 것인데, 이는 주좌에 옷판을 새겼다는 뜻이고, 북두칠성의 주천을 상징한 옷판 위에 기둥을 세웠다는 뜻이다. 이른바 옷판형 암각화가 존재하는 ‘장소성’이라는 측면에서 隱秘性 occultism을 내포하고, 행위성에서 이를 상징한다.

주춧돌의 옷판형 암각화는 주좌의 옷판이 지닌 隱秘的인 상징성에 기반한다.

- ① 확고한 별자리인 북두칠성의 周天을 모사하다.
- ② 前後左右, 對角 對稱의 완전한 幾何學的 完全空間을 만들다.
- ③ 천문학적 질서를 지상의 건축물에 置換transposition하다.
- ④ 건축물의 영구성과 이상적 질서를 확고하게 담보하다.

건축의례로 볼 때, 이는 民間儀禮와 차별화한 지배층의 상징의례이다. 이렇게 본다면 주춧돌의 옷판은 이중의 의미를 구현하고 있다.

- ① 북두칠성의 周天을 모사한 옷판을 주춧돌에 새겨 우주론적 질서를 부여하고
- ② 前後左右 대각의 완전대칭인 기하학적인 옷판을 통해 중심성을 부여한다.

후자는 엘리아데의 중심이론<sup>44)</sup>을 염두에 둔 해석인데, 옷판을 새긴 주춧돌은 中心性과 세계의 축Axis Mundi을 함의한 구체물이고, 聖別된 주춧돌 위에 세운 기둥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宇宙軸이라는 해석이다. 이처럼 건축의례의 한 양식으로써 특정 주춧돌에 옷판을 새겼다는 행위는 세계의 중심을 지향하는 비의적인 상징이다. 그러므로 우주론적 질서와 중심성이 부여된 주춧돌에 기둥을 세운 건축물은 우주론적 질서가 구현된 세계의 중심이 된다.

### V. 잠정적인 결론

건축물 관련 주춧돌에 새긴 옷판형 암각화를 해석하려 할 때, 전통적인 풍수적 관점을 무시할 수 없다. 허한 곳을 裨補하고 넘치는 것을 壓勝하는 것이 비보풍수의 핵심이다. 옷판이 다수의 주춧돌에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주춧돌에서만 발견된다. 이 점은 주춧돌의 옷판형 암각화가 비보풍수의 한 방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뜻한다. 그러나 이는 道說 風水 이후에 적용된 의례적 상징이 될 것이다. 차후의 과제로 삼을만하다.

기존의 연구에서 밝혔듯이 옷판형 암각화는 북두칠성을 숭신하는 七星神仰의 표현이다. 이는

44) M. Eliade, 이동하 역, 1983, 『성과 속』, 학민사, 26~39쪽.

도교적인 표현물이고, 天體와 天上의 이상적 질서를 지상에 구현하고자 하는 隱秘性occultism에 입각한 상징물이다. 秘儀的esoteric 성격을 지닌 표현물을 柱座에 놓음으로써 기둥에 가려지게 되는, 쉽게 드러내지 않는 은밀한 ‘秘義性’을 함의한다. 이렇듯 정확한 隱秘性을 위해 주춧돌에 새긴 윗판의 크기는 기둥의 지름보다 약간 짧다. 그렇기 때문에 ‘가려지는 윗판’이고, 秘義的인 상징이다.

가설적인 차원이지만 결국 향파두리성지의 주춧돌 윗판형 암각화는 다음의 성격을 지닌 秘儀的 儀禮象徴物로 해석해야 유물의 본질적인 가치에 접근할 수 있다.

- ① 비상상황에서 급히 짓는 삼별초의 건물에 북두칠성의 周天을 모사한 상징물을 통해
- ② 천문학적 질서가 반영된 기하학적 완전공간을 구현하고
- ③ 삼별초가 꿈꾸던 이상(항쟁과 왕국 건설)을 달성하려는 隱秘的인 상징물

그러므로 제주도의 향파두리 향몽 유적 내성지 3호 건물지에서 출토된 주춧돌의 윗판형 암각화는 일반적인 建築儀禮와 맥을 같이하는 상징물이며, 국가 차원(삼별초)의 건축의례 象徴으로 만들어진, 제주도 最古의 연대기적 윗판 유물이다.